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표지 탐색하기

<종이가 보내 준 행복>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종이가 보내 준 행복'을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와 뒤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써 보세요.

⇒ ■앞표지 :

■뒤표지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아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됩니다. 어린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꿈과 희망을 만들며, 상상을 통해 지적 충족감을 얻게 됩니다.

① 읽글에서 좋은 문학 작품은 무엇의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고 했나요?

⇒

② 읽글에서 어린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했나요?

⇒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종이가 보내 준 행복>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아빠는 감격에 겨워 허허 웃기만 했고, 엄마는 행복이 얼굴에 연신 볼을 비벼 댔다.

•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하지 못한 말을 혼자 뇌까리며 흙바닥을 툭툭 쳤다.

• 나는 아까부터 제멋대로 실룩거리는 입꼬리를 붙잡느라 입을 꼭 다물었다.

• 창문 밖으로 머리를 빠끔 내밀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니 머리통이 얼얼했다.

• 나를 쫓는 아빠의 눈길이 느껴졌다.

(나) 내가 움직일 때마다 ㉠□□□□ 뛰어올라 매달리는 놈, 아까부터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 짚어 대는 놈, 땅바닥에 코를 대고 쿵쿵거리는 놈, 발로 흙바닥을 파헤치는 놈, 마른 뼈다귀를 ㉡□□□□ 깨무는 놈까지 생김새만큼 하는 짓도 ㉢□□□□이었다.

1) (가)의 밑줄 친 낱말의 기본형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①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

② 아무렇게나 되는데로 마구 지껄이다.

③ 감정이나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다.

④ 맵거나 독하여 혀끝이 몹시 아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

⑤ 근육의 한 부분이 자꾸 실그러지게 움직인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2) (나)의 빈칸 ㉠~㉢에 들어갈 말의 뜻을 보고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 긴 다리를 모으고 계속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 : 물기가 적은 물건을 잇따라 씹거나 뺄는 소리.

㉢ :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종이가 보내 준 행복>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맘껏 슬퍼하는 것도 펫로스 ()을 이겨 내는 방법이라.”
 • “어머, 정말. 요즘은 시골 애들이 () 상태가 더 좋다니까.”
 • “()? 여기 완전 시골이구나. 그럼 마트 같은 건 당연히 없겠네. 헐.”
 • “내 몸에 ()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엄마의 시야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
 도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는 ().”
 • 이럴 땐 민겸이의 ()이 고맙고 부럽다. 아빠도 소리쳤다.
- (나) • “㉠형만 한 아우 없다더니 현수가 창수보다 낫구나.”
 할아버지가 현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 그럼 그렇지. 녀석이 금세 내 말에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1) (가)의 각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

- ① 발육 : 생물체가 자라남.
 ② 오일장 : 닳새에 한 번씩 서는 장.
 ③ 녂살 :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이나 성미.
 ④ 센서 : 열, 빛, 온도, 압력, 소리 등의 물리적인 양이나 그 변화를 감지하
 여 알려주는 부품이나 기구.
 ⑤ 증후군 : 몇 가지 증후가 늘 함께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
 거나 단일하지 아니한 병적인 증상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나)의 밑줄 친 ㉠~㉡과 그 뜻을 알맞게 짝을 지어 쓰세요.

- ㉡ 모든 일에 있어 아우가 형만 못하다는 말.
 ㉠ 어떤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간섭하여 나서다.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종이가 보내 준 행복(1)

<종이가 보내 준 행복>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준영아, 이건 어떻게 할까?” / 종이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빠가 물었다.
 “버려요.” / 나는 그게 뭔지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종이아 죽은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학
 교에 가면 집에 종이아 있을 것 같고, 내 방에 있으면 거실에 종이아 있을 것 같다.
 종이아 없는 우리 집, 우리 가족은 말이 안 된다. 종이아 없는 나는 더더욱.
 종이는 아빠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개다. 아빠는 충무로 애견 센터에서 종이를 보
 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다. 가게 주인은 종이아 포메라니안 순종이라고 했고,
 아빠도 그런 줄 알았는데 키우다 보니 순종이 아니었다.
- (나) “엄마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개를 돌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
 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 보면 어떨까 해서…….” / 엄마의 말에서 나를 꼭 데려가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았다고 했다. 나보다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다
 녀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들을 실컷 쓰다듬
 고 안아 보고 싶기도 했다. 가기로 해 놓고도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1) (가)에서 ‘나’(준영)는 같이 살던 ‘종이가’ 죽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것과 이별했던 경험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나’(준영)가 ‘유기견 보호소’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쫑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쫑이가 보내 준 행복(2)

<쫑이가 보내 준 행복>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댓글을 보고 그 녀석 이름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이? 이름이 행복이라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 전화에 저장된 행복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다른 개들과 함께 찍힌 사진에서 행복이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도 하고, 사진 편집 기능을 써서 행복이 모습만 도려내 따로 보기도 했다. 유기견 보호소에 살고 있는데 이름이 행복이라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았다.

"행복아. 행복이? 행복이……. 행복아!" 나는 쫑이를 부를 때 그랬던 것처럼 행복이를 이렇게 저렇게 불러 보았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깨달았다. 사진 속 행복이가 점점 내 마음속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나) 나는 날마다 잠들기 전에 행복이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행복이, 너. 쫑이가 보낸 거지? 그렇지? 말해! 말하란 말이야!"

내가 몇 번을 물어도 녀석은 대답이 없다. 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 녀석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1) (가)에 나타난 '나'(준영)의 행동과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에 누워서 □□ □□에 저장된 행복이 □□을 확대하거나 따로 보았고, 유기견 보호소에 사는데 □□이 행복이라니,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했음.



□□를 부를 때처럼 행복이를 이렇게 저렇게 □□을 부르면서 사진 속 행복이가 점점 자신의 □□으로 □□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

2) (나)에서 '나'(준영)가 날마다 '행복이'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쫑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만능 트럭 용달이(1)

<만능 트럭 용달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용달이는 우리 집 자가용이다. 뒤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널찍한 짐칸이 달려 있는 용달차라서 그렇게 부른다. 용달이는 나랑 나이가 같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던 해에 용달이를 사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시작했다. / 하지만 용달이보다 몇 배 큰 트럭으로 집을 나르는 이사 전문 회사가 생기면서 아빠의 일이 줄었다. 결국 아빠는 하던 일을 정리했고, 우리 가족은 삼 년 전에 할아버지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다. 이사하는 날에는 우리도 트럭 한 대를 불렀다. 자질구레한 집은 용달이 뒤에 가득 실었다. 우리 집 살림살이가 용달이가 나른 마지막 이삿짐이 된 것이다.

(나) 나는 현수 형, 아니 현수가 정말 싫다. 늘 칭찬만 받는 모범생의 자신만만한 표정도 싫고, 그걸 알고 거들먹거리는 꼴도 영 마음에 안 든다. 더구나 우리가 시골로 내려온 뒤로 나를 시골 촌뜨기 보듯 하는 그 눈빛은 참을 수가 없다. 현수만이 아니다. 아빠를 보는 큰아버지의 눈빛, 엄마를 보는 큰어머니의 눈빛이 다 똑같다.

'첻! 또 무슨 자랑을 하려고 온다는 거야?' /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의자에 올라 앉았다. 아빠 몸에 맞추어 꼭 끼진 의자와 등받이는 나에게겐 좀 컸다.

"현수 온대. 너도 알지? 그래, 그 재수 없는 놈."

1) (가)에서 '나'(창수)의 가족과 '용달이'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용달이는 뒤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이 달려 있는 □□이고, 아빠는 '나'(창수)가 □□□□ □□에 용달이를 사서 □□□□ 나르는 일을 시작했음.



□□□□□□가 생기면서 아빠의 일이 줄어서 아빠는 하던 일을 □□했고, 우리 가족은 □□□□ 전에 할아버지가 사는 □□로 내려왔음.

2) (나)에서 '나'(창수)가 '현수'를 싫어하는 이유를 '표정'과 '눈빛'으로 써 보세요. ⇨



ponyga bo-nae-jun haeng-bok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만능 트럭 용달이(2)

<만능 트럭 용달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차가 아무리 비싸면 뭐 하나? 위에 올라가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울 수도 없잖아.” / “그건 그래. 우리 아빤 차에 손도 못 대게 해. 손잡이만 만지래. 웃기지?”

녀석이 웬일로 내 말에 쉽게 수긍했다. / “우리 용달이는 만능 트럭이야.”

“뽕치시네. 이런 고물차가 만능은 무슨. 이거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어? 블루투스 기능 돼? 네비게이션은 있냐? 없지?” / 그럼 그렇지.

(나) “너는 그런 생각 안 해 봤냐? 어른들한테서 도망치는 생각.” / 현수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밥상 앞에서 게임기를 놓지 않던 현수, 소파에 누워 큰어머니한테 짜증을 내던 현수와 전혀 다른 현수가 말하고 있었다.

“나, 어디든 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나를 못 찾는 곳으로.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게 안 돼. 학교 끝나고 나오면 학원 차가 기다리고, 학원에서 도착하면 엄마한테 문자가 가. 수업 끝나면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고 엄마한테 또 문자가 가고. 내 몸에 센서가 붙어 있는 것 같아. 엄마의 시야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는 센서.” / 현수의 말이 경보음처럼 웬웬 깃가를 울렸다.

1) (가)에서 ‘현수’의 말에 나타난 ‘아빠 차’와 ‘용달이’에 대한 생각을 써 보세요.

↳

2) (나)에서 ‘현수’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생활에 지쳐서 부모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ponyga bo-nae-jun haeng-bok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빅이슈》

<빅이슈>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빅이슈? 빅이슈가 뭐지?’

‘빅 뉴스’는 우리끼리도 자주 쓰는 말이다. 누구랑 누가 사귀다는 소문을 퍼뜨릴 때, 교무실에 갔다가 담임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물어 왔을 때. 하지만 ‘빅이슈’는 낯설다. 나는 망설였다. 아빠는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가 보고 싶기도 했다.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아빠는 짐을 정리하더니 나와 함께 바로 옆 햄버거 매장으로 들어갔다.

(나) 민겸이는 ‘우동’이라는 말에 신이 난 것 같았다. 녀석이 아빠의 바퀴 달린 가방에서 잡지 두 권을 꺼내 양손에 하나씩 들었다.

“《빅이슈》 사세요, 《빅이슈》. 《빅이슈》 있슈. 몇 권밖에 안 남았슈. 빨리 사슈.”

이럴 땐 민겸이의 녀석이 고맙고 부럽다. 아빠도 소리쳤다. / “노숙인 자할 잡지 《빅이슈》입니다. 한 권에 오천 원입니다.” / 나는 슬그머니 잡지 한 권을 꺼내 아빠와 등을 맞대고 섰다. 그러고는 ‘《빅이슈》’라는 제목이 잘 보이도록 높이, 더 높이 쳐들었다. 아빠가 돌아왔다는 빅 이슈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게 하고 싶었다.

1) (가)~(나)에 나타난 ‘빅 뉴스’와 《빅이슈》를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 빅 뉴스 : 우리끼리도 자주 □□□□이고, 누구랑 누가 사귀다는 □□□□이나 등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함.

(나) 《빅이슈》 : □□□□ 잡지이고, ‘나’(주호)의 □□□□가 바퀴 달린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에 오천 원을 받고 파는 것임.

2) (가)에 나타난 ‘나’(주호)의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빅이슈’가 낯설어서 망설였고, 아빠를 모른 척하고 집으로 가고 싶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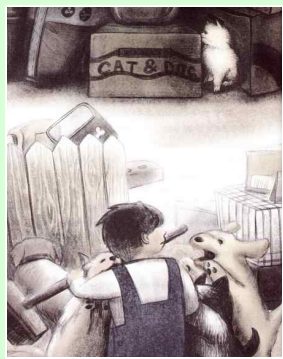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독해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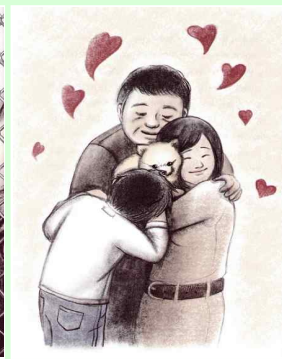
1) 다음은 <종이가 보내 준 행복>에 나온 그림입니다. 각각의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인지 쓰세요.



①



②



③

2) 이 책에 실린 세 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골라서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이유를 써 보세요.

▪ 인상 깊은 장면 :

▪ 이유 :



종이가 보내 준 행복 (초등 4단계)

단비어린이 | 홍민정 글 / 황여진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1쪽	(예시답안) 1) '종이'가 보내 준 행복이라고 하니 어떤 행복인지 궁금했다. 2) 앞표지 : 비 오는 날에 노란 우산을 쓴 남자아이가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감싸고 앉아서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다. / 뒤표지 : 침대에 누워 있는 남자아이가 스마트 폰에 있는 강아지 사진의 얼굴을 왼손의 집게와 엄지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있다. 3) ①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아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 ② 인간 사이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꿈과 희망을 만들며, 상상을 통해 지적 충족감을 얻게 된다.
2쪽	1) ③, ②, ⑤, ④, ① 2) ㉠ : 경중경중, ㉡ : 빠작빠작, ㉢ : 각양각색
3쪽	1) ⑤, ①, ②, ④, ③ 2) ㉠ : ㉡, ㉢ : ㉣
4쪽	1) (예시답안) 준영이처럼 나도 같이 살던 강아지 '바람이'와 이별했던 적이 있다. 친척집에서 눈도 못 뜬 채 우리 집에 온 바람이는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나를 잘 따랐던 바람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자, 너무 슬펐고 많이 울었다. 2) 엄마 아빠를 위해서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들을 싣기 쓰다듬고 안아보고 싶기도 해서
5쪽	1) 침대, 휴대 전화, 사진, 이름 / 종이, 이름, 마음속, 자리 2) 종이가 보내 준 행복이라고 믿고 싶어서
6쪽	1) 집칸, 용달차, 태어나던 해, 이삿짐 / 이사 전문 회사, 정리, 삼 년, 시골 2) 늘 칭찬만 받는 모범생의 자신만만한 표정, '나'를 시골 촌뜨기 보듯 하는 눈빛
7쪽	1) 아빠 차는 손도 못 대며 손잡이만 만지는 차이고, 용달이는 원격 시동이 안 되고, 블루투스나 네비게이션도 없는 고물차라고 생각했음. 2) (예시답안) 현수가 엄마랑 아빠가 못 찾는 곳으로 어디든 가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을 떠나 어디든지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학원 생활에 지쳤다면 부모님과 의논해서 학원을 잠깐 쉬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쪽	1) (가) : 쓰는 말, 소문, 소식 / (나) : 노숙인 자활, 아빠, 한 권 2)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가서 말을 걸었음.
9쪽	1) ① 빗자루를 들고 개똥을 치우는 '나'에게 매달리는 개들과 혼자 숨어 있는 개가 있는 장면, ② '나'의 가족이 유기견 보호소를 나오려고 하자 개들이 대문 주위로 몰려든 장면, ③ '나'의 가족이 새로 입양한 행복이를 같이 안고 행복해하는 장면 2) 생략